

여성농업인 바우처의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 충청남도의 행복바우처를 중심으로 -

이혜인* · 박영구** · 김호***

An Analysis on the Using Situation of the Happiness Voucher and Implications in Chungnam

Lee, Hye-In · Park, Young-Gu · Kim, Ho

The role of female farmers is getting more important in decreasing of farmhouses, lack of young farmer, feminization and aging of farming population. In reality, female farmers have done two things of housework and farming. They have lived in the low level of welfare and cultural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situations of the women farmers' happiness voucher policy in Chungnam, in order to suggest development measur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emale farmers had high awareness and satisfaction for the happiness voucher. Second,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selectable terms. Third, there was a limit to use the full amount due to low accessibility in rural areas. Fourth, the subsidy scale and the self-burden fee was not appropriate.

Key words : *female farmer, female farmer's welfare and cultural activities, happiness voucher*

I. 서 론

여성농업인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사일의 절반 넘게 담당하는 비율은 66.2%이며, 가사노동의 75%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도 82.8%에 이른다(Jeong, 2015). 농가의 소득기반이 주로 밭 농업 중심이며, 여성농업인은 밭 농업의 핵심 노동기반이다. 여성농업

* 제1저자, 단국대학교 대학원

** 1st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대학원(drunk74@naver.com)

*** 2nd corresponding author, 단국대학교 교수(hokim@dankook.ac.kr)

인은 농업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유한 농지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여성농업인은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만족도와 생활의 질을 낮추는 일부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와 문화적 배려를 통해, 여성이 농업인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부분적으로나마 갖추어 갈 필요성이 있다.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작되었고, 이후 법의 개정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5개년 계획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정책은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도농간 복지 및 문화적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의료·복지·편의시설의 다양한 생활 서비스 욕구를 수렴하는 제도로 고안되었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직접 신청하고,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MAFRA, 2019).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복지, 문화, 건강, 여가, 자긍심 등을 목적으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이다. 여성 간의 문화 공동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 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광역지자체 차원¹⁾에서 추진하고 있고 광역지자체마다 대상 연령, 신청기간, 발급방법, 대상자

Table 1. The present condition of female farmers' vouchers

	Enforced year	Purposes	Target ages	Amount (won)
Gangwon	2015	Welfare, culture	20~73	120,000
Gyeonggi	2014	Leisure, culture	20≤	200,000
Gyeongnam	2017	Health, culture, welfare	20~70	130,000
Gyeongbuk	2017	Health, culture	20~65	150,000
Gwangju	2019	Welfare, culture	19~75	100,000
Incheon	2018	Leisure, culture	20~75	200,000
Jeonnam	2017	Welfare, culture	20~75	200,000
Jeonbuk	2016	Welfare, culture	20~70	150,000
Jeju	2016	Culture, travel, pride	20~70	130,000
Chungnam	2017	Welfare, health	20~73	200,000
Chungbuk	2012	Welfare, leisure, culture	20~73	170,000

Source : Lee (2019)

1) 여성농업인 바우처와 유사한 문화바우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

조건, 사용처, 지원금액 등이 각각 다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행복바우처, 복지바우처, 행복카드 등으로 불리며 2012년 충북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경기와 강원, 2016년에는 전북과 제주, 2017년 이후에는 충남, 전남, 경남, 경북, 광주에서 시행하고 있다(Lee, 2019).

일반적으로 바우처란 정부가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의 구매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제로 정의된다(Yu, 2006; Yong, 2012). 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재정 보증서를 말하는데, 이용자는 이를 가지고 선택 가능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Lee, 2013). 바우처 정책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적절한 역할의 분담이 가능하다는 의의도 있다. 즉 수요자의 공급자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정부의 비용으로 민간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여 공공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우처를 통해, 정부가 유일한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하는 독점 시장에서 다수의 민간 공급자의 진입이 허용되는 경쟁시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공급자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정(+)의 효과가 제고되는 것이다(Lee, 2012).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는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다. 바우처의 대상으로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의는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고 있다. 여성농업인은 도시 및 농촌 거주 여성, 농가 여성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다. Fig. 1과 같이 여성농업인은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나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한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역 구분을 두지 않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를 포괄한다(Eom et al., 2018; Kim et al.,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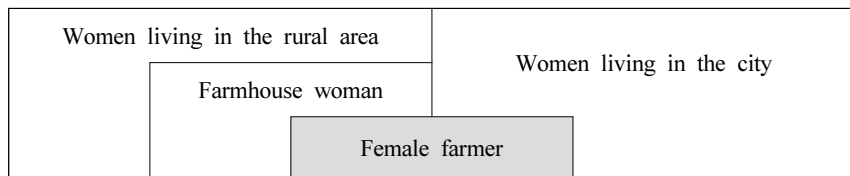


Fig. 1. Concept of female farm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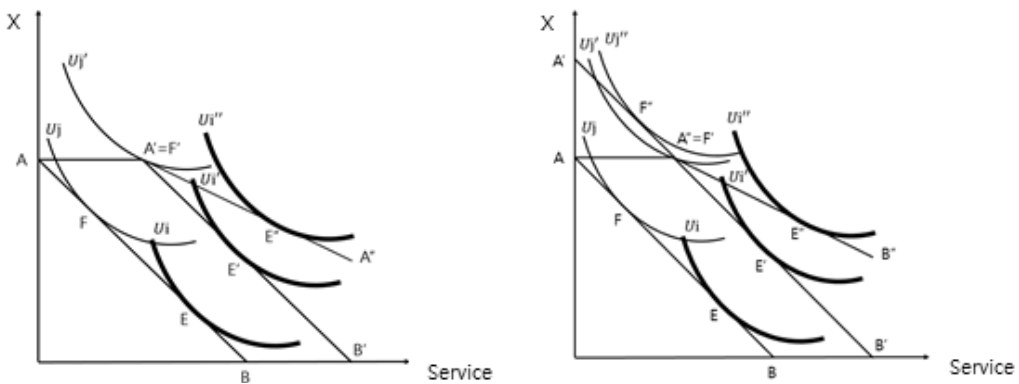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인식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삶의 질 및 문화복지 향상 정도, 만족도가 높은 분야, 사용금액, 희망하는 지원금액과 자부담 규모, 행복바우처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충남지역 여성농업인 211명이며, 충남지역을 사례로 선정 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II. 바우처 정책의 의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우처 정책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이를 통해 수혜자의 효용을 증대시킨다. 바우처와 현물보조, 현금보조와 바우처의 효용 수준에 대해 각각 비교하였다.

Fig. 2의 (a)는 바우처와 현물보조를 비교한 것이다. 선분 AB 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았을 때의 예산선이다. 소비자 i 와 j 의 효용은 각각 무차별곡선 U_i 와 U_j 이다. 만일 정부의 보조가 없다면, 두 소비자의 예산선은 선분 AB 로 동일하며 바우처에 대한 소비량은 각각 균형점 E, F 에서 결정된다. 한편, 정부가 티켓이나 쿠폰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물형태로 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예산선은 선분 $AA'B'$ 형태로 변화한다. 따라서 현물보조의 경우 소비자 i 와 j 의 효용은 각각 U_i', U_j' 이며, 균형점은 E' 와 F' 로 X 재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다.

반면,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다른 재화의 가격은 불변인 상태에서 바우처를 제공하는 공급자들 간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예산선은 점 A' 를 축으로 하여 선분 $AA'A''$ 로 변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 i 와 j 의 효용은 서로 달라진다. 즉, 소비자 i 의 경우, 바우처를 보조해주면 E'' 까지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현물보조보다는 바우처로 보조할 때 소비자의 효용은 더 커지게 된다. 반면 소비자 j 의 경우, 두 가지 보조 방식에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바우처는 최소한 현물보조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소비자 i 처럼 현물보조보다 바우처로 보조할 때 더 큰 효용을 얻는 소비자에게는 바우처가 더 좋은 보조방식이 된다.



(a) Comparison of voucher and in-kind subsidy (b) Comparison of voucher and cash subsidy

Source: Kim (2014) and Lee (2013) was revised and rewritten.

Fig. 2. Comparisons of voucher, cash subsidy and in-kind subsidy.

한편, 현금보조와 바우처를 비교한 것은 Fig. 2의 (b)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정부가 보조하기 전 소비자 예산선은 선분 AB 가 된다. 소비자 i 와 j 의 효용은 각각 U_i 와 U_j 이다. 만약 정부가 현금보조할 경우 소비자의 예산선은 선분 $A'B'$ 로 변화되고, 바우처 형태로 보조할 경우 예산선은 선분 $A'A''B'$ 로 변화하게 된다. 먼저 소비자 i 의 경우, 바우처 보조 시 효용은 U_i'' 로 증가하여 E' 까지 소비를 늘린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으로 보조받았을 경우 (U_i')에는 바우처로 보조받았을 때(U_i'')보다 낮은 수준의 효용을 얻으며, 더 적은 소비를 하게 된다. 반면, 소비자 j 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조를 받을 경우의 효용(U_j'')은 바우처 보조를 받았을 경우의 효용(U_j')보다 더 높은 수준의 효용을 얻게 된다. 즉, 현금보조의 경우 예산선 선분 $A'B'$ 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은 U_j'' 이지만, 바우처의 경우 예산선 선분 $AA''B'$ 에서 누릴 수 있는 효용은 U_j' 로 현금보조보다 더 낮은 수준의 효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소비량은 바우처보다 현금보조를 할 때 더 적게 나타난다.

이같이 바우처는 수혜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농업인은 바우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을 사례로 여성농업인의 인식실태를 조사하였다.

Ⅲ.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이용실태 분석

1. 조사방법 및 개요

이 연구를 위해 충남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 방식은 인터넷 설문지를 통해서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21일~9월 6일이고, 총 211명이 응답하였다.

조사대상 211명 중 연령은 50대가 93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0대(22.3%), 40대(17.5%) 순이었다.²⁾ 영농형태는 전업이 150명(71.1%), 겸업은 61명(28.9%)이었다. 재배 면적별로는 0.5 ha 미만인 75명(3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주 재배품목은 2개 이상이었는데 채소류가 81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논벼(37.0%), 특작(30.8%), 축산(10.9%)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2).

2) 충남 행복바우처 대상 연령은 20세~73세까지임.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requency	%		Frequency	%
Age			Type of farming		
20~30	3	1.4	Full-time job	150	71.1
31~40	15	7.1	Side job	61	28.9
41~50	37	17.5	Total	211	100.0
51~60	93	44.1	Cultivation area (ha)		
61~70	47	22.3	< 0.5	75	35.5
71~73	16	7.6	0.5~0.9	57	27.0
Total	211	100.0	1~1.9	42	19.9
Crop category*			2~2.9	16	7.6
Rice	78	37.0	3~3.9	9	4.3
Fruits	22	10.4	4~4.9	3	1.4
Vegetables	81	38.4	5≤	9	4.3
Special crops	65	30.8	Total	211	100.0
Flowers	6	2.8			
Field crops	5	2.4			
Livestock	23	10.9			
Total	n=211 (100.0)				

Note: Crop category is multiple responses.

2. 분석결과

1)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응답자는 80명으로서 37.9%이었고, 들어본 적이 있는 여성농업인은 112명으로서 53.1%로 나타나 전체의 91.0%(192명)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바우처를 실질적으로 수혜 받은 여성농업인은 133명으로서 63.0%를 차지하고 있다(Table 3).

행복바우처의 혜택을 받지 못한 78명에 대해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기본적으로 신청자격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명(46.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토지소유권 대부분이 가장에게 있는 제도적 문제 때문이다. 바우처 제공 조건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인 현행 바우처 제도 하에 여성농업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없거나 일부이기 때문에 바우처 신청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19.2%) 중복 지원에 따른 혜택 상실(5.1%), 사용처 부족(3.8%), 낮은 지원금 수준 및 자부담 압박(3.8%) 등이 행복바우처의 미수혜 원인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Recognition and benefit of the happiness voucher

		Frequency	Ratio (%)
Recognition of the happiness voucher	No idea	19	9.0
	Have heard of it	112	53.1
	Know well about it	80	37.9
	Total	211	100.0
Whether to benefit a happiness voucher or not	Yes	133	63.0
	No	78	37.0
	Total	211	100.0

Table 4. Reasons for not benefiting the happiness voucher

	Frequency	Ratio (%)
Out of application qualification	36	46.2
Excess of application deadline	15	19.2
Never heard of it	13	16.7
Due to duplicate support	4	5.1
No where to use	3	3.8
Small support amount or self-payment burden	3	3.8
Application of one person per household	1	1.3
Others	3	3.8
Total	78	100.0

2)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만족도

행복바우처를 수혜한 여성농업인 133명에 대한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매우 만족’이 22.6%(30명), ‘만족’ 28.5%(38명), ‘보통’ 30.9%(41명), ‘불만족’ 15.1%(20명), ‘매우 불만족’은 3.0%(4명)로 나타났다. 만족도별로 자신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의 중요도 여부를 측정한 결과 47.4%(63명)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음’의 비율은 3.8%(1명)에 그쳤다.

그리고 행복바우처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 행복바우처의 만족도와 문화 및 복지 수준 향상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행복바우처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및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바우처의 중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즉 행복바우처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행복바우처 정책 만족도와 만족도별 문화복지 향상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이 41.4%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voucher policy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cultural welfare

Unit: persons, (%)

		Happiness-voucher satisfaction						χ^2 -value
		Very satisfied	Satisfied	Neutral	Dis-satisfied	Very dis-satisfied	Total	
Life quality improvement	Very important	21 (15.8)	14 (10.5)	15 (11.3)	9 (6.8)	4 (3.0)	63 (47.4)	15.636 (0.066)**
	Important	7 (5.3)	16 (12.0)	14 (10.5)	5 (3.8)	0 (0.0)	42 (31.6)	
	Neutral	2 (1.5)	6 (4.5)	8 (6.0)	6 (4.5)	0 (0.0)	22 (16.5)	
	Dis-important	0 (0.0)	2 (1.5)	3 (2.3)	0 (0.0)	0 (0.0)	5 (3.8)	
	Very dis-important	0 (0.0)	0 (0.0)	1 (0.8)	0 (0.0)	0 (0.0)	1 (0.8)	
	Total	30 (22.6)	38 (28.6)	41 (30.8)	20 (15.0)	4 (3.0)	133 (100.0)	
Culture & welfare improvement	Very improved	16 (12.0)	8 (6.0)	2 (1.5)	1 (0.8)	2 (1.5)	29 (21.8)	43.351 (0.000)**
	Improved	5 (3.8)	14 (10.5)	7 (5.3)	4 (3.0)	1 (0.8)	31 (23.3)	
	Neutral	8 (6.0)	12 (9.0)	25 (18.8)	9 (6.8)	1 (0.8)	55 (41.4)	
	Little improved	1 (0.8)	3 (2.3)	3 (2.3)	4 (3.0)	0 (0.0)	11 (8.3)	
	Never improved	0 (0.0)	1 (0.8)	4 (3.0)	2 (1.5)	0 (0.0)	7 (5.3)	
	Total	30 (22.6)	38 (28.6)	41 (30.8)	20 (15.0)	4 (3.0)	133 (100.0)	

Note: Double asterisks (**) mean that χ^2 -valu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5% significance level. χ^2 -value is the result of testing the signific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happiness voucher and improvement of life, satisfaction of happiness voucher and improvement of culture and welfare.

(55명), ‘향상된 편’이 23.3%(31명), ‘매우 향상됨’ 21.8%(29명), ‘향상되지 않음’ 8.3%(11명), ‘전혀 향상되지 않음’이 5.3%(7명)로 나타났다. 보통을 응답한 비율(41.4%)에 비해 향상된 편이거나 매우 향상된 편의 합계(45.1%)가 더 크게 나타나 행복바우처 정책이 여성농업인의 문화와 복지를 향상시킨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생활 활력의 증진(30.4%)’, ‘문화생활 구가(29.0%)’, ‘여성농업인의 지위 인정(24.6%)’ 등이었다. 반면에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까다로운 선정 기준(37.0%)’, ‘낮은 지원금액(18.5%)’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Reasons for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n happiness voucher

Reasons for satisfaction	Freq. (%)	Reasons for dissatisfaction	Freq. (%)
Increasing life vitality	21 (30.4)	Complicated selection standard	10 (37.0)
Enjoying cultural life	20 (29.0)	Small support amount	5 (18.5)
Appreciating female farmer's status	17 (24.6)	Promotion lack	2 (7.4)
Using for female farmer herself	7 (10.1)	A few where to use	2 (7.4)
Enhancing self-esteem	2 (2.9)	Complexed processes	2 (7.4)
Contributing regional economy	1 (1.5)	First come system	1 (3.7)
Enhancing cooperative spirit	1 (1.5)	Others	5 (18.5)
Total	69 (100.0)	Total	27 (100.0)

3) 지원 규모 및 사용실적

2019년 충남의 행복바우처 지원 규모는 1인당 17만 원이며 이 중 자부담은 3만 원 수준이다. 이 지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해 행복바우처 수혜 여성농업인 133명에게 질문한 결과, ‘보통’이 37.5%(50명)이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매우 부적절함 포함)은 42.1%(56명)이었고 적절하다는 의견(매우 적절함 포함)이 20.3%(27명)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3만 원인 자부담 규모 역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Table 7). 충남 여성농업인은 바우처 지원 규모와 자부담 비중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Table 7. Opinion of total support amount and self-payment amount

		Frequency	Ratio (%)	5-point scale
Total support amount	Very inappropriate	14	10.5	2.71
	Inappropriate	42	31.6	
	Neutral	50	37.6	
	Appropriate	22	16.5	
	Very appropriate	5	3.8	
	Total	133	100.0	
Self-payment among total support amount	Very inappropriate	26	19.5	2.68
	Inappropriate	28	21.1	
	Neutral	46	34.6	
	Appropriate	28	21.1	
	Very appropriate	5	3.8	
	Total	133	100.0	

Table 8은 행복바우처를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지원금액과 자부담 규모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희망하는 지원 규모는 30~40만 원이 45.9%(6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30만 원으로 28.6%(38명)이었으며, 전체 평균 희망금액은 32.8만 원이었다. 한편 희망하는 자부담 규모에 대해 ‘자부담이 없어야 한다’가 35.3%(47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만 원(28.6%)이었고, 1만 원 15.8% 순이었다. 희망 자부담의 평균 금액은 1.7만 원이었다.

Table 8. Desired total amount of support and self-payment among the total amount for happiness voucher

Unit: Thousand won

		Frequency	Ratio (%)	Average
Desired total support amount	171~199	2	1.5	328
	200~299	38	28.6	
	300~399	61	45.9	
	400~499	8	6.0	
	500~599	18	13.5	
	600≤	6	4.5	
	Total	133	100.0	
Desired self-payment among total support amount	0	47	35.3	17
	10	21	15.8	
	20	14	10.5	
	30	38	28.6	
	40	0	0.0	
	50	13	9.8	
	Total	133	100.0	

행복바우처의 전액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54.1%(72명)로 나타나, 지급된 바우처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절반 이상이였다.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용처가 부족(41.7%)한 경우가 가장 많고, 사용시간(20.8%)과 바우처에 대한 정보(16.7%) 부족, 이동의 제약(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Full use or not of happiness voucher

		Frequency	Ratio (%)
Full use or not of happiness voucher	Full use	61	45.9
	Partial use	72	54.1
	Total	133	100.0
Causes of not using the full amount of the happiness voucher	Lack of where to use	30	41.7
	Not enough time to use	15	20.8
	Lack of usage information	12	16.7
	Restriction of movement	12	16.7
	Problem of physical strength	1	1.4
	Others	2	2.8
	Total	72	100.0

4) 행복바우처의 개선 방향

행복바우처 정책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조사대상 133명 중 69.2%(92명)가 ‘지원금 확대’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자체 예산 확대’ 50.4%(67명), ‘사용처 확대’ 47.4%(63명),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및 자부담 감소’ 각각 45.1%(각각 60명)이었다. ‘지원대상자 수의 확대’도 43.6%(58명)이었고 ‘적극적인 홍보’(36.1%) 등의 순이었다(Table 10).

Table 10. What needs to be improved in the happiness voucher policy

	Frequency	Ratio(%)
Increasing support amount	92	69.2
Expanding local government budget	67	50.4
Expanding where to use	63	47.4
Easing criteria on selected person	60	45.1
Reducing self-payment amount	60	45.1
Expanding supported female farmers	58	43.6
Active promotion	48	36.1
Same implementation over the country	43	32.3
Receiving the card conveniently	42	31.6
Simplifying the application	27	20.3
Using on-line(internet) system	27	20.3
Fast application procedure	24	18.0
Others	11	8.3
Total	622	n=133 (100.0)

Note: Multiple responses.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충남의 행복바우처를 실제 사용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식실태 조사를 하였다. 그래서 현장의 다양한 문제와 요구 등을 파악하여 충남 행복바우처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able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2012년 충북을 시작으로 복지, 문화, 건강 등을 목적으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마다 대상 연령 및 조건, 발급방법, 사용처, 지원금액 등이 각각 다르다. 이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용률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도·농 간 문화 격차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일한 목적을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충남 행복바우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격요건 마련이 필요하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복바우처의 높은 인지도에 비해 수혜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 신청자격 때문이었다. 여성농업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토지 소유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 된 것이다. 바우처 제공 조건이 일정 소유면적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제도 하에서 신청 자체가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신청자격 요건을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거나 여성농업인이라는 이웃 상호 간의 증명 등과 같은 현실화가 필요하다.

셋째, 충남 행복바우처의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9에서 보듯이, 행복바우처 전액을 사용하지 못한 응답자가 54.1%이었으며 41.7%가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사용처의 부족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여성농업인은 밭 농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여유시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거주지역에서는 바우처 사용처가 적어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충남 행복바우처는 총액이 20만 원이고 이 중 3만 원은 자부담이다. 다른 지역도 1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규모이다. 행복바우처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으로서 조사대상의 69.2%가 지원금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2~20만 원 수준의 바우처 지원액은 여성농업인에게 낮은 수혜 체감도를 주게 하며, 여기에 자부담까지 추가되므로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소득창출을 위한 농업노동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원액의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충남 행복바우처 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행복바우처에 대한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에 대해 교차 분석한 결과, 행복바우처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바우처의 중요성도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바우처의 만족도와 문화복지 향상에 대한 교차분석 역시 바우처 정책이 여성농업인의 문화와 복지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바우처를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주된 주체라는 인식을 높임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따

라서 충남 행복바우처 정책은 지속되고 확대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Submitted, January. 18, 2021 ; Revised, April. 12, 2021 ; Accepted, May. 8, 2021]

References

1. Choi, S. E. and S. J. Choi. 2007. The Effect and Evaluation on Voucher Plans. KIHASA.
2. Eom, J. Y., Y. H. Choi, and J. Y. Park. 2018. The Current State of and Policy Tasks for Women Farmers' Farming Activities. KREI.
3. Jeong, E. M. 2015. Issues for Raising the Economic and Social Position of the Women Farmers. KREI.
4. Kim, I. Y. 2014. The Casual Effect on Cultural Consumption of Lower-income Group of Culture Voucher. Myungji Univ. Graduate School.
5. Kim, Y. O. and B. K. Lee. 2000. The Structural Change of Agricultural Population and Women Farm Managers in Korea. J. of Rural Society. 10: 7-35.
6. Lee, H. I. 2019.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s and Awareness Situations for the Happiness Voucher in Chungnam. Dankook Univ. Graduate School.
7. Lee, J. K. 2013. Microeconomics. Moonwoosa.
8. Lee, K. R. 2012.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and Situation for Cultural Welfare. Dongguk Univ. Graduate School.
9. MAFRA. 2019. The 4th Basic Upbringing Plan of Women Farmers.
10. Oh, M. R. 2015. The Mid/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Raising Women Farmers. MAFRA.
11. Yong, H. S. 2012. Issues regarding the Cultural Voucher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6(1): 99-124.
12. Yu, H. W. 2006. Application Plans of Market Principle for Improving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Focused on Voucher Programs. KDI.